

"열방을 노크하다!" 키르기스스탄편 (윤영수 선교사)



(취재 의의) 선교 현장과 교회를 연결함으로써 성도들의 선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는데 있다. 지속적으로 해외선교뿐 아니라 국내선교도 기획 기사화하여 게재한다.



기도나누기

(1)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은 이민 온 종족집단에 속해 있다. 궁극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이 스며들어가야 한다. 이주민들은 1988년 이후 그곳을 떠나는 현상이 일어나 불안정한 성장의 구조를 갖고 있다.

(2)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 이들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17세기에는 이슬람이 들어왔고, 19세기에는 러시아의 통치를 받았으며, 20세기에는 공산주의가 강요되었던 시절이므로 실질적으로 기독교와 접할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더구나 이들은 시골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 대부분이므로 복음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방면에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함이 요구된다.

(3) 선교사들의 안전한 정착을 위하여 : 이웃나라에서 장기간 선교를 하다가 추방당하여, 이곳으로 들어온 선교사들이 적지 않다. 이전부터 사역하던 선교사들과 잘 조화를 이루고 또한 정착을 잘하여 전적 핏박 속에 있는 이웃 이슬람 국가들에 복음을 원격으로 전하는 새로

운 방법들을 찾아 낼 수 있도록 하자.

현재에는 선교단체들의 교제가 공식화되고, 자비량 선교사들의 양적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지 문화에 잘 적응하고, 중앙아시아 선교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아끼지 말자.

윤바나바. 김은비 기도제목

1. 세우신 미르교회와 벨라목사님, 지체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도록. (굴미라예제, 독토르베크, 제냐, 일루샤, 올라, 세르게이)
2. 사순절을 기점으로 부활절까지 매주 토요일(7주동안) 신약통독을 진행중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3. 4월4일 부활 주일날 미르교회에서 첫 세례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며 세례 받은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영적인 열매를 맺도록.
4.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제자매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것들이 준비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센터가 되도록. 카라쿨 지역에 찢어진 심장 계곡이스쿨 호주 주변 넓은 들판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쉬켈 중앙에 위치한 알라투 광장이 나라의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고 기독교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총체적인 문화스포츠 프로젝트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먼저 태권도 리더자 양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올 봄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하드웨어들이 준비되어지도록 (태권도 도장과 도장임대료, 태권도장비,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거할 숙소 등.)
- 이 모든 것이 준비된다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제자매들을 보내주시도록. 그리하여 생명을 살리는 센터가 되도록.
5. 치과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는 중보기도 장소가 생기도록.
- 작년 10월 말부터 메림에 있는 믿는 형제자매들과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치과 근처에 살았던 김남국선교사 가정에서 치과를 위한 중보기도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하면서 중보 기도할 장소를 찾지 못하고 멈춘 상태입니다. 다시 장소가 구해지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먼저 믿는 형제자매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치과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영적 부담감을 느끼고 중보하도록.
6. 메림과 카이로스 치과의 형제자매들이 속히 주님을 영접하도록
- 치과내 은비사역자에게 맡겨주신 다섯명의 치위생사들(나비라, 나지라, 디아나, 나시캣, 라이사)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안에서 참된 소망과 비전을 품고 그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도록.
7. 저희들이 날마다 성령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맡겨주신 영혼들을 아비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게 하시며, 모든 사역들을 더 열정적으로 감당하며,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도록....
8. 지언이와 세언이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선교사 가족 소개

저희 가족을 소개 합니다.

윤바나바(1970년생) 김은비(1971년생) 디모데(2003년생) 요셉(2007년생)

윤바나바 사역자는 1994년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사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문인사역자로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태권도(공인 6단)라는 달란트를 통하여 태권도 지도자 양성과 저변 확대는 물론이러니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그동안의 사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을 겨냥한 총체적인 문화스포츠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은비 사역자 역시 전문인 사역자로서 1999년에 1년 단기사역을 계획하고 우즈베키스탄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장기사역자로 재현신을 하며 현재까지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치과위생사라는 업을 통하여 이슬람국가에서의 소외된 여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호프아카데미 유치원에(선교사 자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9월이면 1학년에 입학합니다. 생후 6개월 때 발견된 중한 병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셉이는 아직은 어려서 엄마 옆에 꼭 달라붙어서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 하려고 하지만 이제 제법 혼자 떨어져 노는 시간이 많아져 은비 사역자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두 아이들을 보면서 미래의 하나님나라의 일꾼이 될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이 이곳에 생활한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점진적으로 사역의 구체적인 방향과 실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기 사역을 시작하려면 많은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올면서 이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전방에서 뛰는 사역자와 후방에서 기도로 뛰는 사역자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숙자봉사 후기

숙자씨와의 따뜻한 사랑을 곳곳하게 느낄 수 있었던 기쁜 시간 박요한 전도사



주님의교회 AWANA TREK(중등과정)에서는 3월 26일 저녁 10시부터 27일 새벽 2시까지 노숙자 급식봉사를 하였다. 총회 사회 선교부 소속인 ‘거리의 천사들’이라는 봉사단체와 함께 종로와 을지로, 광화문 일대의 지하철 역과 지하상가를 돌며 그 일대의 노숙자들에게 몸과 마음에 양식을 제공하였다.

이날 행사는 어와나 트렉 학생 13명과 교사 8명이 참가 했으며, 참가자 모두 밥과 국, 반찬 등의 배식을 담당하여 경배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임했다.

참가자 모두 이구동성으로 “봉사활동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는 그곳에서 감사

배울 수 있었다. 함께 할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학교를 건강히 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중학교 2학년 석주찬 학생은 “저는 봉사시간 채우려고 생각만 하고 갔고 정말 숙자씨(그 곳에서는 노숙자를 ‘숙자’ 씨라는 친근한 이름으로 불린다.)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숙자씨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우리를 보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주시는 아저씨들을 보고 그동안 숙자씨에 대한 편견이 무너졌고, 팀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립하려고 노력하는 숙자씨

들의 얘기를 듣고 이 숙자씨들을 위하여 기도해야겠다는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봉사활동의 소감을 피력했다.

너무 늦게 끝나 각각 집으로의 귀가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이루어져 많이 피곤한 상태였지만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어와나 관계자인 최성진 집사는 “앞으로 어와나 트렉은 한 학기의 2번씩 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꾸준히 우리의 가진 건강과 달란트로 이웃을 섬길 것”이라고 어와나의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

주님의교회 상례위원회를 찾아서



세상은 우리가 미처 꿈조차 꾸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은 우리 속에 깊이 내재된 아름다움을 때가 되면 거스르는 법 없이 일으키고.. 변함없이 돌아가는 자연의 순리에 그저 파아란 하늘처럼 흰 꽃처럼 자연이 되어.세월이 가고, 늙어지고, 작아지고, 그리고 소멸되면 되는 우리들.꽃그늘에 들어서 저 청명의 하늘나라 바라봤으면 참 좋으련만.

사순절을 보내면서 부활절을 맞이하며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세상을 살며 인생의 장막이 무너져 우리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야할 것이다.

주님의교회에서는 지난해 초 상례위원회를 당회에서 인준 받아 2009년 100여건의 행사를 찾아 천국 환송예식에 참여를 하였고 매회 평균 20여분의 성도들이 참여하여 축복 및 위로를 같이하며 공동체의식을 일깨워 주심에 감사와 보람을 느낀다.

상례행사는 대부분 갑작스럽게 발생됨으로 경황이 없이 당황하여 절차 및 행사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슬픔에 젖어 기독교적인 행사절차가 아닌 유교적인 행사로 진행됨을 많이 본다.

한평생을 같이 살아가면서 가족들과 헤어진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지만 한 개인의 생명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한다고 보면 한 생명을 기쁨으로 하늘나라에 보내드리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느낀다.

장례지도사로 많은 상례에 참여하는 최오섭 총무는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비용이 많이들어가며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가기 때문에 승화원 예약등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상례위원회가 앞장서서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있으며 임종에서 전 과정에 대한 행사를 교회가 동참하여 공동체의식으로 진행 되도록 노력한다”고 한다.

품위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볼 때 그 죽음이 품위있는 삶을 살아가는 말인 것 같다. 삶을 정리하고 주님 앞으로 떠나는 마지막 환송 예식에 교회가 주관이 되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위해 상례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며 상례진행 사진을 CD로 제작해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 안수집사회와 권사회에서 적극 참여해주심에 감사를 느낀다 한다.

〈편집부〉

은혜로운 죽배달을 하며



상쾌한 바람 속에 봄내음이 사르르 파장처럼 번져오는듯한 설레임으로 4월을 맞이합니다. 4월 1일 (목) 거여동 독거 어르신들 죽배달 사역 예배를 거여3동 노인회관에서 드렸습니다. 서울에서 오지 중에 오지 그 곳에서 어렵게 병중에 사시는 어르신들 무척 많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15분의 봉사자가 5-60명의 어르신들에게 죽배달을 합니다. 금년에는 목

요일에는 과일도 같이 배달해 드린답니다. 배달팀장 김달현 집사는 “한봉지의 사랑이 담긴 죽으로 인한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동안 아름다운 만남은 생각만 해도 행복한 미소가 떠오르고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서는 살 수가 없고 많은 사람과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나에게서 어떤 소중한 만남이 다가올지 궁금하다”면서 “귀하게 얻은 소중한

마음들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겠노라”고 말했습니다. 배달을 하며 어르신들의 하늘나라 가심으로 인한 헤어짐에 많은 아쉬움도 있지만 언제나 봉사의 손길, 행복을 찾아, 기쁨으로의 봉사는 그 어느 즐거움과 비교가 안된다고 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2인 1조로 새로 봉사를 함께한 집사님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편집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_ 군 선교를 다녀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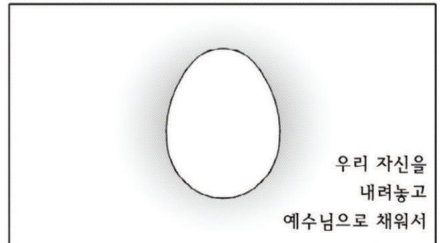
3월 28일 군선교위원회에서 세례예배를 보병51사단에서 신병 184명의 새 생명을 주님 앞에 세웠다. 참 즐거운 날이었고 행복한 날이었다. 조정현 목사는 요한복음 3:16-21절 말씀으로 오직 한번 뿐인 인생 빨리 지나가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군 생활 충실히 하여 감당하기

쉽지 않은 세상 잘 이겨나갈 힘을 키워가자기를 그리고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빛의 자녀로 삼아주기를 바랐다. 같이 참석한 교우들은 일교차가 심한 날씨 속에 훈련 등을 받으며 건강하기를 바랐다. 장병들 간절히 기도하는모습 모습에서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실종된 전우들

생각에 이번 세례식은 더 특별했을 것 같았다. 세례 후에 준비해간 간식으로 축하를 해주며 모든 장병들 무사히 군복무 마치고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기를 함께 기원했다. <편집부>

부활절

허윤정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음반은 보컬 트리오 Selah의 <Greatest Hymns>입니다. 찬송가를 가장 감동적으로 부른다는 평을 받고 있는 Selah는 크리스천 뮤지계의 그레미상이라 할 수 있는 도브상을 여러 번 수상한 실력파그룹입니다. 현재는 여성 멤버가 바뀌었지만, 이 음반이 나올 당시에는 파워풀하면서도 영감 넘치는 가창력을 지닌 Todd Smith와 Nicol Sponberg 남매와 피아노를 정말 잘 치는 Allan Hall이 함께 했습니다.

이 음반에 실린 대부분의 곡은 우리가 평소 즐겨 부르는 찬송가들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오 신실하신 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음성외에는', 'Amazing grace'... 이같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찬송가들을 영어와 새로운 편곡들로 들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였던 부모님을 따라 아프리카에서 8년간 살았던 Todd와 Nicol 남매를 통해 전해지는 아프리카 리듬과 그들의 언어로 부른 찬송가들은 신선하고 색다른 기쁨을 전해줍니다. 이 음반을 들으며 그들이 부르는 찬양을 우리말로 함께 따라 부르다 보면, 언어도 사는 곳도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 형제자매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드렛 나뭇가지에도 꽃봉오리에도 봄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마음에 봄을 맞지 못하고 계신 분들께 이 음반을 권해드립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 아픔을 일러주며, 축 쳐져 있는 우리 영혼을 친히 세워 주시는 하나님의 파스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앨범이기 때문입니다. <박윤정 기자>

교회사무실 인사이동



관리장로 최중명 장로(신) 사무행정 함상주 집사(신)



서무 김지연 간사(신)



경리 황둘람 간사(신)



교역자실 김지선 간사



목양실 김 선 간사



디자인실 노현주 간사(신)



관리실 하태준 전기기사(신)

함글함글에서
기자를 모집합니다.

하태원 편집장 HP_019.313.3073

|오늘의 말씀|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_ 눅 24 : 5 - 6

통 권 _ 제 261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10년 4월 4일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네!

성금요일음악예배 _ ‘십자가상의 칠언’ 성스럽게 공연



본 교회에서는 부활절 기념 특별행사로 지난 성금요일 시온성가대(지휘:김인수집사) 주관으로 십자가의 칠언(The seven last words of christ:드보아작곡)을 무대에 올렸다. 십자가의 7언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일곱번의 말씀을 의미한다.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된 칸타타는 예배를 여는 조성득 장로의 광고에 이어 박원호 담임목사는 7언을 통해 복넋땅에도 찬양이 이어지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시작된 칸타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고통을 위로하는 스프라노 이해정의 서곡 아리아가 울려 퍼졌으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나오미가 겪은 슬픔’을 토해냈다. 또한 천상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고통에 처한 예수와 관객을 위로했다.

바리톤 장철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무지한 인간들의 용서를 부탁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바리톤 특유의 웅장한 목소리로 열연했다. 그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 하소서 저들은 뭘 모릅니다” 흐느끼는 듯한 목소리로 예수가 십자가를 메고 땀과 피와 눈물이 엉킨채 불쌍한 영혼을 구하려는 인자의 마지막 절규를 연출했다.

이대형 테너는 예수를 위로하는 따뜻한 목소리로 고통당하는 예수를 향한 끝없는 위로를 보냈다.

150명의 대형 합창단은 칸타타 사이사이를 탄

성과 좌절, 모욕과 야유를 적절하게 표현하며 천지의 변화와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냈고, 관객에게 긴장감과 두려움을 안겨 주었다.

드디어 예수는 “다 이루었다”고 크게 외친후 고개를 떨구었다. 이어서 휘장이 갈라졌다.

지휘자 김인수 집사는 "부활절을 기념하는 방법에는 '부활'을 주제로 하는 경우와 '수난'을 주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수난을 주제로 잡았다"며 40일간의 연습중에 경비 문제가 가장 힘들었다며 "부활절같은 의미있는 행사에 교회가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피력하기도 했다. <하태원 편집장>

평일은 지하철을 이용하세요.

본 교회는 평일 주차장 사용금지를 결정했다. 주일과 수요일예배를 제외한 어느 시간대에도 주차할 수 없다. 정신학원에는 중고 3000여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하고 있어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교회와 학원 간의 마찰의 소지가 있어 자동차 사용을 금하고 있다. 특히 본 교회는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을 사용하면 교통체증에 대한 염려가 없어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태원 편집장>

로 뎀 나 무



| 그루터기 |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사리이다.
(시편71:20)

잘려서 작은 나무가 된
그루터기를 만난다.

잘려서 다 끝난 것 같아도
봄이 되면 새순이 돋는다.

잘려서 작은 나무가 됐지만
언젠가는 다시 큰 나무가 된다.

잘려서 아무 소용이 없어 보여도
잠시 쉬어가는 의자가 된다.

잘려서 낮은 나무가 되었기에
아프고 힘든 이들의 친구가 된다.

주님!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며
오늘 주어진 이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옵소서.
아멘.

<엄혜숙 기자>

부활절 편지	2면
사순절새벽기도/금주의 포커스/간증	3면
부활절 축하메세지외	4~5면
열방을 노래하다(키르기스스탄)	6면
노숙자봉사후기/상례위원회를 찾아서	7면
죽나눔봉사/군 선교를 다녀와서/교회인사이드	8면

*우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Mission

“예수 부활하셨네!” “진실로 부활하셨네!”

성도님과 함께 맞는 세 번째 부활절 아침,

온 생명을 용서하며 새 생명 주신 거룩한 사랑이 입증된 날,
죄와 죽음의 권세가 마침내 무너진 날,

새 생명의 은총,
서로 사랑할 용기와 능력,
온 땅에 이 소식을 전할 존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날,

거대한 무덤을 밀치며 힘 있게 시작된 새 아침을 맞으며,
밀려오는 감격스러움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부활의 은총과 능력이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도님과 함께 섬긴 지난 3년은,
저로서는 너무나도 풍성하고 복된 날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귀한 교회로 오게 됐는지,
어떻게 이 귀한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됐는지,
어떻게 이렇게도 새로운 성도들의 발걸음을 매주 맞게 하시는지,
어떻게 부족한 종의 기도를 구하기 전에 미리 응답해주시는지,
어떻게 이 엄청난 사역을 오늘까지 감당케 됐는지...

날마다 저의 삶을 충만케하는 감사들이요, 사명을 감당케 하는 능력들입니
다.

이번 부활절을 맞아, 목회자로서 저는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하늘 나라의 알곡 되도록 하기 위해선,
“예수의 친구들”이라는 제자화 사역을 위해 헌신할 수 밖에 없음을 깨달았습
니다. 담임 목사로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생명을 다해 헌신해야 함
에도 불구하고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는 현실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형태의 목
회로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의 모습이 아님을 깨달았고 아울러서
자칫하면 숫자나 외형에 취해 생명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두려운 음성을 듣기

에 온 힘을 다해 용기를 내서 시작한 사역입니다.

워낙 큰 사역이라 두려움이 앞섰지만 지금까지 변함없이 도우시는 주님의 손
길을 깨닫기에 용기를 내게 되며 오히려 시간이 더해질수록 저의 소망이 아
니라 함께 사역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소망을 느끼게 됩니다.

제자화 프로그램의 목적은 주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며
그 명칭으로는 “예수의 친구들”(요 15: 15)이라고 부쳤습니다. 중심 내용은
로마서 14: 187절에 따라 성령 안에 거하는 삶, 의와 평화와 기쁨의 삶입니
다.

전체 기간은 3년으로서 첫 해는 스스로 준비하는 기간이며 한 달에 한번씩
지도자와 만나게 됩니다. 둘째 해는 매주 한 번 만나게 되며 함께 기도하고
공부하며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셋째 해는 자신의 그룹을 준비하
며 이들을 훈련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이를 위해 4월에서 6월말까지 미국과 성지를 중심으로 다니면서 이 사역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졸업한 유니언 신학교(버지니아 리치몬
드 소재)에서 교수들과 대화하며 자료를 찾고 정리하려고 하며, 5월초에 잠
시 한국에 돌아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텔아
비브에 있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성지연구원(원장 김태훈 목사, 주님의교회 등
록 교인임)에 머물면서 마지막 점검을 할 것입니다. 이 사이 기간동안 그리스
와 터키에도 들러 초대 교회들의 모습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님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소망도 나누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헌신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소망하며,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으며,
다시금 부활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주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2010년 부활절 아침
담임 목사 박원호 드림



사순절 새벽기도회 성황리에 마쳐



본 교회는 지난 2월 17일부터 40일간의 사순절 새벽기도를 은혜스럽게 마쳤다. 새벽 5시 30분부터 시작된 기도회는 목사님이 당일 통독할 성경 4-5장의 내용을 요약정리해주신 다음 정해진 통독자가 성



경을 낭독했다. 20여분간의 성경통독에 이어 뜨거운 기도회가 시작되었다.

많은 성도들은 성스러운 이 시간 예수님이 겹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연상될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하

는 모습에 본 교회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통독자로 참여한 김영남 권사는 “사순절을 말씀과 함께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통독자로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옵니다. 평소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말씀들이 모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날마다 회개하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고 자신의 간증을 말하기도 했다.

또, 함경숙 집사는 “거룩한 주의 전에 세우사 주의 말씀을 통독케 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저는 부족한 딸이오나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운행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주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밖에 유혜용집사, 최상인장로, 장혜정 권사 등이 함께 통독자로 수고하여 넘치는 은혜를 나눌 수 있었다.

〈취재/정리: 편집부〉

정려탐방! : 제5여선교회-교회를 지탱해 나갈 뜻뜻한 여집사님들.

“믿음과 봉사로 매일 기도 드리는 충성된 주님의 딸이 되기를 바라며”



제5여선교회는 1960~1965년생으로 구성된 선교회(회장 윤희정 집사)입니다. ‘귀한 믿음과 기도를 통해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딤후 2:21)’ 라는 말씀위에 봉사와 선교를 위해 기도와 실천을 먼저 행하는 주님의 딸들의 모임입니다.

올 해의 주요한 봉사내용으로는 늘푸른대학 점심식사 후 설거지 봉사(세째주 화요일 제외한 매주 화요일) 월1회 세째주 수요일에는 수서복지관 반찬봉사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와 독거노인들을 위한 작은 봉사를 통해 우리가 받은 작은 은혜를 다시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갖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선교지원 사항으로는 코스타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금상호선교사님과 중국 소수 민족을 위해서 선교 중이신 이찬영, 이주희

선교사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의 주요한 활동계획으로 3월 연합여전도회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4월 봄나들이, 5월 연합여전도회 수련회, 10월 가을나들이, 11월 농어촌 직거래장터 바자회(작년에는 떡과 빵판매), 연합여전도회 종강예배, 수능기도회, 12월 송년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제5여선교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회원들 간의 유대가 돈독해지며, 신앙 속에서 하나되어 합심하여 봉사하는 아름다운 선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교회원들은 신앙친구들과 만날 수 있다는 즐거움과 필요한 곳에 봉사하며 서로 중보기도를 통한 믿음 나

누기 등 모임마다 은혜로운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필요한 곳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한마음 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는 회원들을 보면 ‘과연 주님의 딸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욱 변창하고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5여선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많은 회원들의 참여 또한 기도드립니다.

〈글: 오수련 집사-제5여선교회 총무〉

우리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저는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나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갔고, 막연하게나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절실하게 체험하며 살지는 못했습니다. 진로를 정하고 직업을 찾고 결혼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또 다시 주님을 멀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아이를 가지려는 노력을 하면서 저희 부부가 그동안 얼마나 자만하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가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급한 마음에 병원을 찾았고, 검사결과 남편도 저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어떻게든 빨리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에 의사선생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험관 아기 시술을 했습니다.

힘든 과정을 겪고 어렵게 임신하였지만 자궁외 임신이 되어 저희 부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기는 낳을 수 없었고, 주사를 맞아서 임신수치를 낮추는 시도를 했습니다. 만약 잘 되지 않으면 큰 수술을 하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사를 여러 번 맞았지만 이상하게도 수치는 점점 올라갔습니다. 생명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태아에게 너무 미안했고, 독한 주사였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셔서 수치를 낮춰달라고 간절하게 기도 드렸습니다. 간절한 기도 중에 스스로를 믿었던 제가 얼마나 나약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고,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저희 부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수술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되돌아보면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능력을 믿고 자만했던 저희 부부를 깨어지게 하였고 창조주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생의 소개로 ‘주님의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 출석하면서 목사님의 좋은 말씀을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등록을 미루다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등록을 하였고 어색 하지만 새신자 양육도 받게 되었습니다.

새신자양육 첫날, 인상 좋은신 양육리더 집사님과 여러분들 덕분에 편안한 마음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의 힘들었던 경험을 나누게 되어 위로와 격려를 받았고,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 제 어려움을 남들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자존심 강한 저였기 때문에 처음 본 분들에게 저의 힘든 경험을 말씀 드렸다는 것이 저나 남편에게는 매우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모두가 형제자매라는 느낌으로 인해 누구에게도 쉽게 하지 못한 이야기를 담대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대 반 설렘 반으로 한 주 한 주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히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는 저희 부부를 다시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나만의 잣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살아왔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양육반 소그룹과의 나눔으로 저희 부부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얻었습니다. 리더 집사님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지 배울 수 있었으며,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무엇보다 우리 모두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태어난 것 같은 저희 부부는 앞으로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못했던 성경일독도 올해는 꼭 해내고, 주일만 지키는 교인이 아니라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합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너무 많고 세상적인 것에 찌든 채 살아가는 면이 많지만 새로운 마음이 짐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육과정의 끝난 다음 주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와 우리 소그룹 형제자매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큰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남혜민〉

4 특집

부활절 축하메세지



임주청 장로



김용일 장로



김한중 장로

부활절 아침에 주님께 올리는 기도

〈주님의교회 임주청 장로〉

죽음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의 생명이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빛과 참생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생명을 얻은 모든 아들 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의심많은 도마에게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 주셨던 예수님! 오늘 이시간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안수하여 주시어서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대신 감당하신 주님, 그 수치스러움과 고통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과 조롱을 용서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주님, 저는 주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오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찬양합니다. 다시 사신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외칩니다.

부활이 이 자리에도 임재한다는 사실을 믿게 해 주신 주님! 저희가 사랑하는 주님의교회를 계속 붙들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머물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되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되어 주님의교회에 발을 들여 놓는 사람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자리에 나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받은 구원을 우리만 간수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명하신 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교회의 어린 새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선지자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다 쓰러져가는 이스라엘을 일으켜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물들지 아니하고 어려운 이 나라와 교회를 일으킬 선지자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종을 이자리의 어린 새 세대중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단위에 서시는 박원호담임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권세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온심령을 채울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이 전을 떠나 세상에 흠여질 때에도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진면목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 되게 하옵소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함이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보였던 것처럼 우리들이 흠여져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바로 그 곳이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침해가 힘차게 돋음같이 온누리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옵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부활의 산 신앙을 가지고 능력있게 하시며 자신을 죽임으로써 더 큰 자신을 되돌려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봉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다시 사심을 축복하는 부활절예배가 단순한 행사로 그치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하오며 부활하신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절 (The Resurrection) 의 유래와 풍습들 〈편집부〉

우리들은 기독교인으로서 해마다 봄이 되면 부활하신 예수를 기리며 부활절이 되면 감사와 기쁨을 나눈다. 그런데, 왜 해마다 날짜가 다른 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의 유래와 풍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부활절의 유래

부활절은 교회력 절기 중 하나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부활절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지 삼일째 되는 날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리는 날이다. 기독교의 부활절은 기존 유럽과 중동의 다신교 전통과 상징물이 합쳐진 것이다. 3세기경 지켜졌던 기독교의 부활절은 오늘날 지켜지는 부활절과는 상당히 달랐다. 기독교가 한창 전파되었던 시점에, 다신교문화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와 예수의 부활에 대해 거부감이 적은 방법을 찾던 중 교회 지도자들이 다신교의식의 많은 부분을 자신들의 유대교 의식에 접목하게 되었다. 즉, 다신교의 의식들에 기독교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차츰차츰 섞여가던 의식들이 결국 기독교의 부활절로 탄생되었던 것이다.

시기 및 계산법

부활절은 매년 그 날짜가 달라진다. 이르게는 3월 셋째 주 늦게는 4월 넷째 주에 올 수도 있는데 이는 부활절이 음력으로 지켜지기 때문이다. 초기 교회는 유월절 시기로 부활절을 지켰다. 초기 교회의 부활절은 3월, 4월경에 불규칙하게 위치하며, 그레고리력이나 율리우스력으로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불규칙의 이유는 부활절의 날짜가 히브리력의 유월절 이

후 첫 안식일 다음날(히브리력에서의 춘분)에 부활했다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D. 4세기에 접어들어 부활절을 언제 지켜야 할지 논쟁거리가 되었다. 어떤 교단은 유월절과 부활절의 관계가 계속되기를 원했고 다른 교단은 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전과 같은 방법은 예수가 부활한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부활절이 있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니케아 공의회에서 춘분 후 첫 보름이 지난 일요일로 지키기로 정했고 보름이 일요일에 질 경우 그 다음 주 일요일로 지켜졌다. 오늘날도 이 방법으로 그 날짜가 계산된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춘분 후 첫 보름이 지난 주일에 지키기로 한 이후에는 날짜의 계산 방식이 달라짐으로,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3월 22일에서 4월 25일 사이에 위치해 있게 되었다. 이런방식을 통해 올 해의 부활절은 춘분(3월21일) 후 첫 보름(음력)인 3월30일을 넘긴 주일이므로 2010년 4월 3일 일요일이 된 것이다.

언어적 유래

부활절을 뜻하는 영어 'Easter'와 독일어 'Ostern'은 원래 튜튼족이 숭배하던 '봄의 여신'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이스터 여신을 기리는 기간은 4월에 있었는데, 이 축제가 부활절과 사육제의 유래가 되었다.

상징물

부활절의 상징물은 크게 부활절 달걀과 부활절 토끼 두 가지가 있다. 과거 로마인들은 모든 생물은 알로부터 온다고 믿었다.

고대 기독교인들은 달걀을 삶의 씨앗이라고 여겼다. 그리스에서는 빨간색(crimson red)을 칠하는 데, 이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일부에서는 초록색을 칠하는 데, 이는 새 생명의 푸르름을 상징한다. 또한 슬라브족들은 계란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 넣어서 예수의 부활을 기념한다. 이집트, 그리스, 페르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는 봄 축제 때 달걀을 여러 색으로 물들이고 교환했다. 이것이 예수가 무덤을 열고 부활하는 의미와 가미되어 오늘날 알록달록한 색으로 장식된 달걀이 부활절의 상징이 되었다. 토끼는 다산하는 동물로 다산의 신 Oestre의 상징이었다. 부활절 토끼 풍습에 관한 언급은 16세기 독일에서 가장 먼저 보였다. 이 풍습은 부활절 토끼가 초콜릿, 캔디, 부활절 달걀 등을 착한 아이들에게 준다고 여겨 아이들이 토끼를 위해 집을 만드는 것이다. 18세기에 독일 이민자들이 미국에 오면서 함께 이 풍습이 전해지고 있다.

비슷한 시기를 절기 혹은 축일로 지키는 다른 신앙과의 비교

▲태양 숭배 - 부활절은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길어지는 춘분(3월 20일~21일 사이)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고대 이집트 등의 태양 숭배의식에 있어서 춘분이후로 태양의 활동 기간이 짧아진 이후, 6개월 후인 춘분 때 다시 부활한다는 의미로써 이날이 축하되었다는 것에 유래를 둔다.

이집트의 부활절 - 고대 이집트에서는 태양신 라를 최고신으로써 숭배하였기에,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길어지는 춘분을 축하하였다. 이집트인들은 신전에 태양신 라의 부활을 상징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부활절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교회 김용일 장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와 그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음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 53:1-3, 5-6)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던 3월 하순, 느닷없이 날아 온 서해에서의 초계함 침몰과 아직도 생사를 알지 못하는 46명의 장병에 대한 구조 활동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두 조카와 부모님을 뒤로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누나의 뒤를 따라간 한 젊은이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인간의 지금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생각하며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리석은 양과 같아서 제 갈 길을 제멋대로 갔습니다. 세상의 길을 가면서 유혹에 빠지고 탐욕에 젖고 모질고 거칠게 서로를 비난하며 시기했습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서 모함했고 두 손을 바라보면 죄악의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대신 찔림으로 대신 매맞음으로 우리의 죄를 눈처럼 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살 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해주신 주님의 한없는 축복이 여기저기에서 목격되기에,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확신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간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와 생명의 길을 성실하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절에 아들에게 쓰는 편지

〈주님의교회 김한중 장로〉

“안식일 다하여 가고 안식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 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들 혼!

내가 이제 장성하여 한 가족을 이루고 제법 애비 티를 내는 모습에 나와 네 엄마는 부러운 시선으로 널 바라보면서 지난 날을 회고하여 보았다. 우리가 처음 봉천동으로 이사를 왔을 때 매우 추운 겨울이었던다. 그래서 수도가 터지고 물이 흘러 빙판길이 되기 일쑤였지. 그런데 당시 연탄재라는 것이 있었는데 연탄재는 참 요긴했다. 미끄러운 빙판길에 재를 뿌리면 미끄러지지 않아 모든 사람이 연탄재를 집밖에 내놓고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했단다.

나는 지금 연탄재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다. 연탄재는 자신이 에너지가 있을 때 아낌없이 열기를 인간에게 다 바치고 이제 생명이 다되면 밖에 버려지는데 다시 인간들에게 미그럼 방지라는 도구로 사용된다. 아마도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 희생한다고나 할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아무런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못박혔고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고통을 당하면서 인간의 죄를 대속했다. 죄많은 우리 인간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피한방울까지 인간을 위해 바쳤다. 그리고 절망하는 인간들을 위해 다시 부활하여 또 인간들의 미래를 약속해주셨잖나? 이처럼 두 부분은 너무도 꼭 일치되는 것 같아.

나의 삶의 전부였던 너!

이제는 너도 네 자신을 불태울 때가 되었단다. 삶이라는 고해에서 격량과 폭풍을 만날지 몰라. 때로는 아버지의 역할을 벗어버리고 저 멀리 도피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너에겐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 이들은 너의 삶 전부이고 너의 희망의 전부일 것이다. 마치 내가 내 삶의 전부이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땐 예수님을 떠올려봐. 그는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희생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해 부활하셨단다. 그런데 너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닌 네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것이잖나?

어제 유리창에서 너를 보았다. 네 아내의 손을 잡고 아이를 무릎에 앉혀서 길을 지나가는 너. 넓은 너의 어깨는 믿음직했고 네 가족에게 보낸 미소는 행복해보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매사에 충성스럽게 씨를 뿌렸으니 내가 30배 60배 아니 100배이상 행복의 열매를 맺게 해줄게”

하는 황금색으로 염색한 계란을 바쳤다. 또한 고대 이집트에서 토끼를 의미하는 'um'이란 단어는 '기간'이라는 뜻과 같은 발음이었기 때문에, 토끼는 태양의 주기성 사상과 관련이 있는 다산을 상징하는 동물이었다.

▲**풍습** -부활절의 풍습은 크게 계란 굴리기(Egg Rolling), 계란 찾기(Egg Hunt), 부활절 퍼레이드(Easter Parades), 그리고 부활절 카드(Easter Cards)교환이 있다. 우선 계란 굴리기는 19세기 초, 미국 4번째 대통령인 James Madison의 부인인 Dolly Madison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녀는 국회의사당에 아이들을 초대했고 잔디밭에서 계란 굴리기 이벤트를 열었다. 계란을 깨뜨리지 않고 긴 스폰 모양의 막대기로 가장 멀리 가장 빨리 굴리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계란 굴리기의 규칙이다. 1880년부터는 장소가 바뀌어 백악관에서 열렸는데, 이는 국회의사당 정원이 망가진다는 의원들의 항의 때문이었다. 이 이벤트가 계속되어 남북전쟁 때를 제외한 매년 열리고 있다. 12살 이하의 아이들이 참가할 수 있으며, 어른들은 아이들과 동반 시에만 입장할 수 있다. 부활절 월요일은 여행객들이 백악관 마당을 지나다닐 수 있는 유일한 날이다. 두 번째로 계란 찾기는 단체 또는 마을단위로 이루어지는데, 많은 계란을 부활절 아침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곳곳에 숨기고 아이들이 그것들을 찾게 하는 것이다. 가장 많이 달걀을 찾은 아이가 상품을 받는데 이 상품은 주로 달걀모양의 초콜릿이다. 세 번째로는 부활절 퍼레이드가 있다. 이 퍼레이드는 부활절 아침 사람들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갔다가 마친 후 마을을 돌아다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가장 유명한 퍼레이드로는 뉴욕시의 오번가(Fifth Avenue) 퍼레이드를 꼽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활절

카드가 부활절의 풍습으로 정착되었다. 미국의 카드회사인 American Greetings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발렌타인데이, 어머니의 날 다음으로 가장 많은 카드를 보내는 날이 부활절이라고 한다. 그 밖에도 부활절 햄, 부활절 빵 등 다양한 형태의 풍습이 전해지고 있다. (Wikipedia 참조)

■신세대들의 Easter egg는?

요즈음의 신세대 용어 중 이스터 에그(Easter egg)는 영화, 책, CD, DVD, 소프트웨어, 비디오 게임 등에 숨겨진 메시지나 기능을 뜻한다. 이스터 에그라는 이름은 서양권에서 부활절에 달걀을 미리 집안이나 정원에 숨겨두고 아이들에게 부활절 토끼가 숨겨놓은 달걀을 찾도록 하는 부활절 달걀 찾기 풍습에서 유래했다. 최초의 이스터 에그는 1978년에 발매된 아타리 2600용 비디오 게임 Adventure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은 특정 픽셀 단위로 지나가면 이스터 에그를 넣은 프로그래머의 이름이 나온다.

뭐든 물어보세요. 부활절에 왜 계란을 먹나요?

이 풍습의 유래는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자린드 부인은 남편이 십자군 전쟁에 나간 뒤 나쁜 사람들에게 집을 빼앗겨 먼 산골 마을에 가서 피해 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딱한 로자린드 부인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부인은 그 친절에 보답하는 뜻으로 부활절에 마을 아이들을

모아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상징으로 예쁘게 색칠한 달걀을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그 달걀에는 부인이 직접 쓴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는 말이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로자린드 집안의 가훈이였습니다.

어느 해 부활절 날, 부인은 길에서 병든 어머니를 찾아간다는 어린 소년을 만났습니다. 부인은 그 소년을 위로하고 가지고 있던 색 달걀 하나를 주었습니다. 부인과 헤어진 그 소년은 어머니를 찾아가는 중에 한 산골에서 병든 군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군인을 보살펴주고 로자린드 부인에게 받았던 달걀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아 든 군인은 그 달걀에 적힌 글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바로 자기 집안의 가훈이었으니까요. 군인은 그 소년에게 물어서 결국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그 후에도 해마다 부활절이면 자신의 남편을 찾아준 색 달걀을 이웃들에게 나눠주었고 이것이 유래가 되어 오늘 날에도 부활절이면 부활의 메시지가 담긴 색 달걀을 나누며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부여를 하자면 생명(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에서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이 가장 비슷하다고 여겨 계란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은 계란이어서 실제적인 생명탄생과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하는 반론이 있어 요즈음 교회에서는 작은 화분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편집 : 유기영 목사〉